

문제 1

1. “제시문 <가>, <나>는 행위의 범위를 개인으로 한정하는 반면 제시문 <다>는 사회로까지 확장시킨다. 제시문 <가>에서는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자신의 지위에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주장한다. 제시문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 행위만을 언급함으로써 <가>와 동일한 입장이다. 이와 달리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의 행위를 넘어 정부의 정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공리의 원리를 주장한다.” 비교 오류입니다. 제시문 (가)는 신분제를 논하고 있음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각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논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2. “제시문 <가>에서는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파악한다. 한편, 제시문 <나>에서는 타인에게 종속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위 할 때 행복해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설명한다.” 여기서도 아쉬운 게, (가)와 (나)는 사회 제도(운명)에 순응하나 여부로 조건을 따졌지만 (다)는 이와 비대칭적으로 이익의 증진이라는 비교기준을 가져와 비교기준의 대칭성이 떨어져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치 비행기와 배를 비교할 때 ‘탈것’이라는 비교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비행기는 날라다니고, 배는 사람이 많이 탈수 있다. 이런식으로 비교한 느낌이죠.

3. “<가>와 <다>는 행위의 결과가 타인의 행복감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점이다.”

가는 사실적으로 행복감 증진에 도움 되지 못합니다, 물론 훌륭한 주인은 증진을 시키겠지만 제시문 문맥상 신분 제도의 변화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 증진은 가능하지 않죠.

4. 전체적으로 형식상으로 문제를 잡을 것은 없지만, 3자비교의 정석적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불합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정석적인 형식으로 다양한 비교기준을 설정해 비교를 시도했음에도 내용들과 근거들이 모두 틀려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니 불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2

1. “ 제시문 <나>에서는 개인의 행복추구가 타인의 행복까지는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행복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준편차를 중요시하여 얼마만큼의 행복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가를 중시한다.

내용은 맞지만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 논리 부족입니다.

2.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개인의 행복이 증진되면 사회의 행복까지 증진된다는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를 중요시 한다. 공동체의 행복이 개인들의 행복까지 보장해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도가 높을수록 국민 모두의 행복감이 높은 것이라고 파악한다. 그러므로 표준편차를 고려하기 보다는 행복도에 초점을 둘 것이다.”

내용은 맞지만, 1번지적과 같이 왜 (다)에서 표준편차는 중요 요소가 아닌지에 대한 근거서술 또한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답안의 방향성은 맞지만 근거가 매우 부족한 답안으로

난이도가 낮은 이 문제에 대해선 합격의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